

상징기능의 관점에서 본 기술과 예술 Technology and Art from the Point of View of Symbolic Function

추정희 / 강원대학교 강사

Jung-Hee Chu / Lecturer, Kangwon University

- I. 서론
- II. 상징기능과 재현의 의미
- III. 재현과 형식, 그리고 예술
- IV. 기술에서 형식과 재현
- V. 재현의 관점에서 본 기술과 예술의 차이
- VI. 결론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표는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의 상징기능 특히 재현기능을 중심으로 기술을 문화현상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기술의 기능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기술을 어떤 일정한 정신적 구조로 파악하고자 하며, 기술의 본질과 기술의 작용과 형성의 가능성의 조건을 묻는다. 도구로부터 비롯된 기술은 인류를 심신이 분리되지 않는 신화적 단계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그것은 정신적 위기를 유발했지만 또한 동시에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자기의식이 형성될 수 있었고 또 발전시켰다. 재현기능은 인간이 언어나 상과 같은 것으로 자신의 삶과 정신을 표현하는 상징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기능으로, 재현기능의 관점에서 기술을 파악하는 일은 기술과 정신, 기술과 형식의 관계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문화의 전체적 의미 연관에서 기술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술과 다른 상징형식과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술과 비교할 대상으로 예술을 고찰한다. 기술과 예술이 본질상, 직관과 재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술이 형식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최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는 기술과 예술이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과 창조성에 의해 최고의 성취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의 성취 속에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자기의식이 관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핵심어 | 기술, 상징기능, 예술, 자기의식, 재현기능, 형식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function and meaning of technology by examining technology culturally and phenomenologically, focusing on Ernst Cassirer's symbolic function, especially the function of representation. First, this study intends to grasp technology as a certain mental structure, and asks about the nature of technology and the conditions for the possibility of operation and formation of technology. For this purpose, among the symbolic functions, especially the representation function is taken as a basic concept. The representation function is involved when an image depicting something has a referential relationship to it. When technology is conceived in terms of the function of represent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spirit, between technology and form will be revealed. Second, this study considers that it is necessary to elucid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other symbolic form, that is, art in order to grasp the overall meaning of culture. In this way, it would like to reveal that technology and art can reach their highest achievements through the free spirit and creativity of human beings, and that moral and practical self-consciousness is involved in the achievement of this culture.

Keywords | Art, Form, Function of Representation, Self Consciousness, Symbolic Function, Technology

I. 서론

기술의 발달, 기술의 창조가 인류의 역사상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인정할 때마다 매번 제기되는 문제는 인간의 소외이다. 짐멜(Georg Simmel, 1853-1918)이 주장한 “현대 문화의 비극”도 이 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¹ 자유로운 주관성이 문화를 창안했지만, 자아는 더는 이것을 통제하거나 간파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자아의 운동은 자신의 창조물에서 부서진다. 문화 철학자이자 미학자인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 1874-1945)는 이러한 비극이 현대 기술의 발전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² 인공지능 기술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역시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새로운 기술의 힘에 지배당할 뿐만 아니라 기술이 스스로 진화하면서 인간을 구속할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을 하기도 한다. 카시러는 스피노자의 정치철학을 위한 준칙, “비웃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인식하라”는 준칙³을 상기시킨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나 불안감 대신에,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은 기술을 제대로 인식할 것과 새로운 기술로 인해 드러난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재인식이다.

카시러는 인간의 소외라든가, 문화의 비극과 같은 비판적인 사고들이 던지는 물음을 새롭게 보라고 요구한다. 이 물음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지향하고 있고 기능들로 향하고 있다면, 이 물음은 기술이나 문화적 사태를 단순히 악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지녔다기보다는, “인간 자신에 대한 물음, 인간 자신의 의미와 규정에 대한 물음”(FT, 165)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이라는 현상 앞에서 인간소외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와 같은 물음은 결국 현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다시 새롭게 규정하길 요구한다. 결국 카시러는 기술이나 문화를 향하는 것으로 보였던 물음을 인간 자신에 대한 물음으로 되돌려 놓았고, 기술의 창조와 함께 인간 자신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와 동시에 그는 기술이나 그 문화도 가치에 따른 판단에서 해방시키고, 기능이나 형식의 척도에서 바라보기를 요구한다. “기술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며, 오히

1. Georg Simmel, “Der Begriff und die Tragödie der Kultur” (1911), in *Hauptprobleme der Philosophie, Philosophie Kultur, Gesamtausgabe*, Band 14, hrsg. von Rüdiger Kramme und Otthein Rammstedt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96), p. 411.

2. Ernst Cassirer, “Form und Technik” (1930), in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Aufsätze und kleine Schriften (1927-1932)*, Bd. 17 (Hamburg: Meiner Verlag 2004), pp. 139-183. 이하 FT로 약칭한다. 또한 본문에서 페이지는 표시 없이 숫자로만 표기한다.

3. 스피노자, 『정치론』 공진성 옮김 (도서출판 길 2020), I. § 4.

려 현상이자 징후이다. 결정적인 것은 문화의 개별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의 기능이며, 문화가 걸어갈 특수한 길이 아니라 문화가 택하는 일반적인 방향이다”(FT, 172). 바로 그 점에서 그는 새로운 기술도, 그에 따른 새로운 형식도 정신적 기능의 산물이라고 보았고, 인간의 자유와 의지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한 카시러의 사고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정신의 기능으로서 상징기능(Symbolfunktion)에 주목하면서, 비판적 현상학적 방식⁴에 따라 기술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의 방향을 형성해가는 인간의 자기의식을 파악하는 방식을 취한다. 상징기능들 중에서도 재현기능을 통해 형식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기술에서의 자기의식의 형성과 발전을 주목할 것이다.⁵

둘째로 재현기능의 관점에서 기술과 다른 상징형식, 즉 예술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기술의 고유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예술이 그 본질상, 직관과 재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형식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최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인류문화의 필연적인 길로서, 기술과 분리될 수 없고, 기술과 연관하여 장차 예술에 고유한 새로운 형식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식을 매개로 하여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과 예술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문화의 전체적 의미와의 연관 하에서 기술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과 새로운

-
4. 비판철학적 방식은 칸트에게서, 현상학적 방식은 헤겔에게서 취한 것으로, 카시러는 이와 같이 통합된 방법을 문화철학적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5. 본 연구와 연관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면, 우선 기술에 대한 카시러의 관점을 분석하고 있는 글로, 존 마이클 크로이스(John Michael Kroise, 1943-2010)의 *Cassirer: Symbolic Form and History* (1983)는 상징기능의 관점에서 기술과 자기의식, 의지, 개성의 형성을 다룬다. 에른스트 볼프강 오르트(Ernst Wolfgang Orth, 1936-)의 “Zum Begriff der Technik bei Ernst Cassirer und Martin Heidegger” (1987)는 기술과 형식에 대한 카시러의 생리학적 병리학적 관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상징적 형식들 일반을 구축하는 과정 즉 상징적인 구성과정을 논한다. 브리짓트 팔켄부르크(Britte Falkenburg, 1953-)의 “Wissenschaft und Technik als symbolische Formen” (2012)은 카시러의 상징형식의 이론의 영역에서 자연과학과 기술을 다룬다. 이 논문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술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카시러의 설명이 진일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외에 크리스티안 베르메스(Christian Bermes, 1968-)의 “Cassirers Konzeption einer Anthropologie der Technik” (2012)와 볼커 게르하르트(Volker Gerhardt, 1944-)의 “Menschwerdung durch Technik, Ernst Cassirers Theorie des Geistes” (2012)는 기술의 인간학적 이론이라는 카시러의 구상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논문은 오르트의 “Goethe als Therapeutikum zu Ernst Cassirers Pathologie des Symbolischen” (2002)이다. 이 논문은 기술의 본질이나 기술과 관련된 다른 상징형식들과의 관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초를 보여준다. 특히 상징기능이 카시러의 상징형식에 논리적 틀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병리학적 관점이 기술을 구성해가는 정신의 과정을 밝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상징기능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과 예술의 관계를 다루고, 문화발전 속에서 예술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고 있다.

문화의 의미연관을, 특히 새로운 기술을 구체화시키는 “하나의 공통된 의미”⁶를 향하고 있음을 조명하고자 한다. 카시러에 따르면, 상징형식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결코 일정한 정신적 구조나 특정한 표현수단을 서술하는 것으로 머물 수 없고, 이 상징형식들 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이다.⁷ 이러한 상호관계를 통해 규명되는 것이 하나의 공통된 의미이며, 그것은 결국 자유와 의지를 통해 문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II. 상징기능과 재현의 의미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상징형식의 철학』의 세 번째 권에서 논하고 있는 ‘상징기능’이다. 상징기능은 상징형식이 논리적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고 상징형식들이 통일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되었다 (PsFIII, 48-49).⁸ 카시러는 상징기능이 개념세계만이 아니라, 직관이나 지각도 정신의 자발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직관이나 지각도 외부로부터 인상을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독자적인 형성법칙에 따라 형태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PsFIII, 57). 따라서 상징기능을 통찰한다는 것은 대상들에 관계하는 순수한 주관성에 대한 통찰을 의미한다. 상징형식과 같은 세계이해의 형식의 총체에 접근하고자 할 때, “주관성을 기능들의 전체로 파악하고”, 상징기능에 의해서 “하나의 세계와 그것의 특정한 의미-질서라는 현상”이 우리에게 실제로 구성된다 (PsFIII, 59).

상징기능은 “표현기능(Ausdrucksfunktion)”, “묘사기능(Darstellungsfunktion), “의미기능(Bedeutungsfunktion)”으로 세분화된다 (PsFIII, 118). 카시러는 이러한 상징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직관이나 지각, 감각에서 시작한다. 그는 감각이 존재 자체의 직접적인 풍요로운 상태를 그대로 제시하고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PsFIII, 4). 그 점에서 표현기능이 작동하는 것은 감각 인상이 현전할 때, 즉 직접적으로 나타날 때, 의식의 어떤 내용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이다. 예를 들어 신화적 체험의 세계는 순수한 표현체험에 기초하고 있는데, 본질이 현상 안에 단편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로서 불가분의 파괴할 수 없는 통일체로 현현한다 (PsFIII, 80).

6. Ernst Cassirer, *Zur Logik der Kulturwissenschaften, Fünf Studien* (1942),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Band 24, hrsg. von Birgit Recki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7), p. 411. 이하 LK로 약칭한다.

7. Ernst Cassirer, “Der Begriff der symbolischen Form in Aufbau der Geistes- wissenschaften” (1923), in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Aufsätze und kleine Schriften (1922-1926), Bd. 16 (Hamburg: Meiner Verlag 2003), p. 96.

8. Ernst Cassirer,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dritter Teil: Die Phänomenologie der Erkenntnis* (1929)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 gesellschaft 1973). 이하 PsF III으로 약칭한다. 또한 몇몇 용어를 제외하고 『상징형식의 철학: 제3권 인식의 현상학』 박찬국 옮김 (아카넷 2019)의 번역에 따른다.

이와는 달리 묘사기능은 재현과 펠레야 펠 수 없는 특성을 보인다. 카시러는 모든 감각이 “현전(Präsenz)과 재현(Repräsentation)의 어떤 구체적인 통일체”(PsFIII, 149)라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의식 전체의 내부에서, “직관의 세계부터 이미 그 개개의 요소들이 단순히 현전적 성격만이 아니라 재현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 바꿔 말하면 그것들이 단순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즉 그것들이 서로를 지시하며, 특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대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규정되고 있다”(PsFIII, 138). 따라서 감각 인상이 직접적으로 현전하는 가운데 어떤 다른 간접적인 관계가 끼어든다면, 즉 어떤 재현적 규정이 끼어든다면, 묘사기능이 작동한다. 즉 “의식의 어떤 내용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내용을 표현하려고 할 경우야 비로소, 즉 의식의 어떤 내용이 직접 현전하지 않는 내용을 재현하려고 할 경우야 비로소, 의식 전체의 항들 사이에 존재하는 저 상호관계가 들어서는 것이다”(PsFIII, 5).⁹

이때 상호관계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의 지각, 특정한 지각이 특정한 중심을 이루고, 이것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재현의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다. 사물과 속성, 공간과 시간과 같은 직관형식들에 따라 감각현상들의 질서가 구성될 때, 감각현상들 전체가 분절되면서 지각세계가 구성될 때, 이러한 현상들의 전체를 관계 짓고 방향 짓는 특정한 중심이 형성된다(PsFIII, 257). 이러한 특정한 중심들로 인해 하나하나의 특수한 지각은 현상들을 내적으로 연관시키는 운동의 전체적 법칙과 형식을 담지하면서도, 의식에 대해 이 운동을 대표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정한 중심을 창출하는 것이 정신의 근본기능이자 창조적인 특성이다. 자아를 매개로 하는 시간의식에서의 재현작용은 그러한 특성을 더욱 강조한다.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마저 품은 현재라는 자아의 시간 의식을 통해,¹⁰ 자아의 형태화작용이 설명된다. 이 점을 통해 인간 정신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재현기능을 습관이나 관습으로 환원하려 하거나 단순한 재생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PsFIII, 170-171, 185). 바로 이점에서 직접적인 현전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기능과는 달리, 묘사기능은 직접적인 현전에 거리를 둬으로써, 재현의

9. 카시러는 묘사기능을 설명하면서, ‘재현’을 언급하고, 재현기능을 설명하면서 ‘묘사’를 언급하는데, 대체로 두 용어를 별 차이 없이 사용한다. 영어권에서도 ‘Darstellung’을 ‘Representation’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묘사기능과 재현기능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10. 카시러는 “자아는 시간의식의 삼중적 형식에서만 자신을 발견하고 인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간의 세 국면도 자아 내에서만 그리고 자아에 의해서만 통합된다”(PsF III, 199)고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을 인용하고 있다. “이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미래도 존재하지 않고, 과거도 존재하지 않고,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셋이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시간이 셋인데 과거에 대한 현재, 현재에 대한 현재, 미래에 대한 현재라고 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성염 옮김 (경세원 2020), 제11권 26절.

관점에서 정신의 창조적인 형태화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상징기능이다.

III. 재현과 형식, 그리고 예술

기술에 대한 재현기능을 구체적으로 논하기에 앞서서, 재현기능과 형식(Form)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형식개념은 보는 행위로부터 시작된다. 대상에 대한 직관, 대상과의 거리에서 비로소 형식개념이 설명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카시러의 형식개념은 “정신적인 봄(geistige Sicht)” (PsFIII, 155)에서 설명된다. 여기에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이다 (PsFIII, 282/ Theaetet 184d). 카시러는 ‘본다’는 것에서 에이도스(Eidos)와 에이돌론(Eidolon)의 의미를 분석한다. 특히 그는 정신의 눈을 통해서 보는 에이도스에 주목함으로써 형식개념을 논한다.¹¹

카시러의 형식개념은 단순히 외적 형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체로서 직관에 관련된 것이자, 전체로서 직관을 비로소 성립시키는 근원적 형성작용, 즉 “상징적 이념화 작용”과 관련된다 (PsFIII, 155). 이념화하는 봄의 방식을 통해서 비로소 보이는 것의 의미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때 (PsFIII, 156), 감각적으로 보는 것도 이미 항상 정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며, 항상 특정한 관점에서 본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와 같은 형식개념의 관점에서 대상을 본다는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근원형식, 그것에 내재하는 법칙에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카시러의 형식개념의 형성에는 “근원현상”을 주장했던 괴테, 그리고 괴테와 깊이 교류했을 뿐만 아니라 “내적 언어형식”을 주장했던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1767-1835)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¹² 괴테와 훔볼트 둘 다에게 형식개념은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성력의 원리를 가리킨다. 즉 그들에게 형식은 “만들어진 형식(forma formata)”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형식(forma formans)”을 의미한다.¹³ 그러나 형식개념에서 대상을 본다는 것의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 가능성만이 아니라 한계도 파악하게 함으로써, 대상에서 형식의 변화도, 이행도 예감하게 한다.

11. Cassirer, “Eidos und Eidolon, Das Problem des Schönen und der Kunst in Platons Dialogen” (1924), in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Aufsätze und kleine Schriften (1922-1926), Bd. 16, p. 139.

12. 근원형식이라는 개념은 괴테가 말한 “원상적이고 전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성의 모험 (괴테, 『직관적 판단력』, 『색채론: 자연과학론』, 장희창·권오상 옮김 [민음사 2003], p. 340)에서만 아니라 “근원식물” (괴테, 『이탈리아 여행』, 박영구 옮김 [생각의 나무 2005], 1787년 4월 17일 팔레르모 / 1787년 5월 17일 나폴리)을 비롯한 “근원현상” (괴테, 『색채론: 자연과학론』, 물리색, Nr 175)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훔볼트의 “내적 언어형식” (훔볼트, 『카비말 연구 서설』, 『훔볼트, 언어와 인간』, 신익성 편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p. 134)와 연관된다.

13. 신익성 편저, 『훔볼트, 언어와 인간』, p. 24.

이러한 형식개념에서 재현기능이 의미를 지닌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감각적 현상들의 질서가 구성될 때, 그리하여 특정한 지각이 전체를 대표하는, 혹은 대리하는 특정한 중심을 형성할 때, 재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⁴ 이 특별한 중심은 다름 아닌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형상 혹은 형식이다. 카시러는 참된 재현기능에서 “형식이 부여된 전체적 직관”(PsFIII, 144)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각세계의 구성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좀더 확실해진다. 지각세계의 구성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전체로서 직관을 관련시키고, 직관을 전체로서 비로소 성립시키는 근원적 형성작용”(PsFIII, 155)이다. 이러한 근원적 형성작용을 설명하고 지각작용에서의 정신의 창조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카시러가 제시한 것이 “생산적 구상력(produktive Einbildungskraft)”(PsFIII, 155)이다. 생산적 구상력이야말로 직관형식의 창시자이다. 카시러는 공간형식과 시간형식을 획득하기 위해 칸트가 주장한 구상력의 선험론적인 기능(transzendente Funktion)을 취하지만, 그 기능면에서 볼 때 재생적 구상력에 한정하지 않고, 자발성을 토대로 하는 생산적인 구상력을 강조한다.¹⁵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이념화작용과 생산적인 구상력을 강조하는 카시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용어가 “상징적 함축(symbolische Prägnanz)”¹⁶이다. “상징적 함축은 어떤 지각적 체험이 감각적 체험이면서 동시에 특정한 비-직관적 의미(Sinn)를 자체 내에 포함하고, 이러한 의미를 직접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가리킨다”(PsFIII, 235). 한마디로 이 용어는 지각의 재현적인 수행을 보증하는 것이자, 더 나아가 상징적 관계에서 사물들을 규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다(PsFIII, 274). 이 용어는 현상의 풍요로움을 구제하면서도 동시에, 지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집약하고 있다.

상징적 함축은 칸트의 선험론적 통각(transzendente Apperzeption)과 후설의 의미부여작용(bedeutungsverleihender Akt)을 인식 비판적이고 현상학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구체화된

14. 바라봄의 한 형식이 다른 형식으로 변화할 때 직관의 개별적인 계기만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직관도 변화한다. 다시 말해서 “감각적 현상들이 재현적 성격을 획득하고, 묘사기능의 담지자가 되는 것은 그러한 현상들이 자체로 끊임없이 자신을 분절화해야만 가능하다. [...] 하나의 직관적 전체가 그 자체로 정밀하게 분절화해갈수록 더욱더 풍부하고 폭넓은 묘사 가능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PsF III, 162-163). 이처럼 직관적으로 주어진 구조 내에서 모든 중심이 이동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묘사되는 것도 변화한다.

15. “순수지성의 자발성, 즉 논리적·과학적 사유와 구성의 자발성뿐만 아니라 순수구상력의 자발성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구상력도 결코 단순히 재생적으로만 기능하지 않고 근원적으로 생산적으로도 기능한다”(PsF III, 12).

16. 라틴어 ‘praegnans’는 ‘짐을 가득 실은’, 혹은 ‘탄생을 준비하는’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독일어 ‘prägen’은 ‘화폐를 주조하고 분명한 윤곽선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명사 ‘Prägnanz’는 ‘간명’, ‘의미심장’, ‘함축’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 용어를 ‘함축’이라 번역하고자 한다.

것이다. 우선 카시러는 칸트가 주장한 “통각의 종합적인 통일”¹⁷을 “지각을 보다 깊이 인식 비판적이고 현상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지반”으로 본다 (PsFIII, 224). 그러나 카시러는 결국 선험론적 주관을 순수오성개념들의 객관적 타당성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비판적 현상학적 문제가 존재의 문제로 교체되었고, 기능적인 고찰이 실제적인 고찰로 교체되고 말았다고 비판한다 (PsFIII, 227). 또 후설의 의미부여작용의 경우, 아무런 의미도 포함되지 않은, 그래서 자신 안에 아무런 지향성도 갖지 않는 감각적인 것으로서 질료 층과, 혼을 불어 넣는 의미부여적인 층으로서 노에시스 층이 구별된다. 카시러가 비판한 것은 현상학적 고찰의 입장에서 형식 자체, 질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존재하는 것은 항상 전체적인 체험뿐이며, 이러한 전체적인 체험이 질료와 형식이라는 시점 아래에서 서로 비교되고 이러한 시점에 따라서 규정되고 분절될 수 있을 뿐이다” (PsFIII, 231). 그럼으로써 그가 문제 삼는 것은 “특정한 체험들 전체가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을 향하고 있으며 동일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PsFIII, 231-232). 여기에서 그는 현전과 재현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는데, 이로부터 지각 자체가 이미 구조화되어 있으며, 지각은 동시에 의미 속에 살고 있다고 규정한다 (PsFIII, 235). 지각이 이미 특정한 방향과 일정한 법칙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칸트를 비판하면서 인식하는 주관을 기능적 관점에서 보고, 후설을 비판하면서 지각이 전체적인 직관을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가운데, 카시러의 용어로 정립된 것이 “상징적 함축”인 것이다. 지각이 하나의 의미전체, 하나의 통일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은¹⁸ 모든 지각의 특수한 측면들이 질서 있게 분절화 되어 있는 하나의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징적 함축은 상징형식들의 가능성의 조건이다.

재현작용에 있어서, 지각이 점진적으로 상징적 내용을 채워감에 따라 지각이 그 구성에 있어서 출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각적 인상을 직접적으로 현전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자유를 획득할 수 없다. 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미를 보존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수용해야 한다. 공간적 관계든, 시간적 관계든, 수적 관계든, 그러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확고한 좌표계를 창출하고 또 어떤 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로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이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PsFIII, 294). 이를 위해서는 일단 출

17. 칸트의 통각의 통일은 “자기의식의 선험론적인 통일”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1787], hrsg. von Raymund Schmidt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67], B 132)로, “경험 중의 만상의 필연적 합법직성의 선험론적 근거” (A 127)이다.

18. 지각이 이미 특정한 의미를 향하고 있고, “하나의 의미 전체”, “전체적인 직관”이나 “시야의 통일”을 지니고 있다고 카시러는 주장한다. 여기에는 플라톤의 지각의 종합에 대한 관점, 즉 이데아의 통일 (플라톤, 『테아이테토스』, 정준영 옮김 [이제이북스 2013], 184d)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발점, 고정점을 선택하고 또 폐기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롭게 시점을 전환함으로써 그 고정점을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¹⁹ 고정점이 상징, 기호로 나타나기에, 이러한 지각 구성은 상징적 태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재현기능을 고려하지 않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동일한 하나의 경험 요소를 여러 연관관계 속에 편입시키는 것에서 (PsFIII, 300), 그리고 의미의 변환, 치환, 전환 (PsFIII, 303)에서 재현기능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현이 일어나는 고정점으로서 형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된다.

이제 재현기능이 정신을 스스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역사적, 문화적 의식으로 성장시키는 기능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지각현상이 어떤 특정한 의미전체를 가리키고,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지닌 자기완결적인 형상으로 형태화될 때, 카시러는 이러한 형태화를 “상징적 재현” (PsFIII, 212)이라고 표현하였다. 현실보다 앞서 달리면서 길을 지시하고 비로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상징이기에, 상징적 재현은 역사적, 문화적 의식의 토대를 이룬다. 이러한 의식은 바라보는 관조의 계기와 행위라는 활동의 계기의 상호작용, 생산적 구상력과 행동력의 상호작용에 의거한다.²⁰ 즉 “역사의식은 자아가 어느 정도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미래의 존재를 형상을 통해서 자신 앞에 제시하고 모든 개개의 행위를 이러한 형상으로 향할 수 있는 지에 달려 있다” (PsFIII, 212). 이제 의지는 상징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러한 형상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향해 손을 뻗고 한낱 가능한 것을 붙잡으려 한다. “행위의 모든 단계는 어떤 이념적 구상을 — 즉 그 행위를 전체로서 선취하면서 행위에 통일성과 연관과 안정성을 보증하는 이념적 구상을 — 끊임없이 고려하면서 행하게 된다” (PsFIII, 212). 만일 이러한 전망이 커진다면 행위도 보다 역동적일 것이고, 보다 순수한 정신적 형식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의미는 그 성과에 있지 않고 형태화과정 자체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태화과정 속에 세계를 새로운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양문화에서 르네상스가 끊임없이 도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징적 재현을 통한 역사적 문화적 의식의 자기 전개 덕분이다. 카시러는 “세계사의 위대하고 진정한 르네상스들은 언제나 자발성의 위대한 승리였지 단순한 수용이 아니었다” (LK, 470)고 주장하고, 페트라르카

19. 실어증 환자의 지각의 병리학적인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카시러가 이해하게 된 것은 지각구성이 감각기관이나 감각, 지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상징 혹은 재현의 문제라는 점이다. 즉 재현이 불가능할 경우, 지각구성은 불가능하다 (PsF III, 300 참조).

20. 카시러는 「괴테의 판도라」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괴테의 미완성 시 <판도라 Pandora>에 대해 논한다. 그에 따르면, 그 시는 관조하는 사람인 에피메테우스와 행동하는 사람인 프로메테우스를 대립시키고, 그들의 자식들의 사랑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의지 실현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rnst Cassirer, “Goethes Pandora” (1924), in *Idee und Gestalt. Goethe, Schiller, Hölderlin, Kleis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4), pp. 7-31 참조.

를 그 사례로 든다. 즉 “페트라르카는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흔히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상하게 들릴는지 모르나 그가 이런 근대인 칭호를 얻게 된 사연은, 그가 고대를 한층 더 깊고 새롭게 이해하였다는 데 있다” (LK, 470-471). 페트라르카가 고대의 언어,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고대 삶의 형식을 들여다보았고 이렇게 봄으로써 자기 자신의 원천적인 삶의 느낌을 형성하고 자기 자신의 형성이념을 위한 형식을 재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예술은 고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고대 그리스와 같은 과거의 위대한 시대는 언젠가 다시 발현되어 새로운 활동을 통해 알려질 순간만을 기다리는 거대한 잠재적 에너지 덩어리인 것이다. 따라서 매개로서 작용하는 언어와 예술이, 무엇보다도 그것들의 형식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술가이다. 정신의 고차원적인 활동 속에서 형식을 산출하는 자, 즉 형식의 대가가 바로 예술가이기 때문이다. 형식이란 곧 정신의 삶의 총체성을 보는 방식이기에, 그러한 형식의 대가야말로 세계상을 제시할 수 있다. 예술가의 시선을 통해,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보는 방식을 통해 16세기 영국의 르네상스인들의 전체상을 이해할 수 있고 (LK, 444), 루벤스의 눈을 통해서 17세기 플랑드르인들에 대한 전체상을 획득할 수 있다 (LK, 441). 그리고 다시 전체상은 미래의 예술가에게 새로운 세계상을 위한 씨앗으로 작용할 것이다.

재현기능으로 주목할 만한 상징형식으로 예술을 그 대상으로 삼았지만, 기술도 그에 못지않다.²¹ 기술이 형식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고, 또 기술이 정신의 전체적인 운동 원리에 따른 것이라면, 기술의 전체상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IV. 기술에서 형식과 재현

카시러가 기술에 대한 형식부여의 가능성의 조건을 논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 (FT, 139), “보는 것 자체의 방식” (FT, 142)이다. 기술을 형식개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기술을 만들어진 산물로 보지 않고 형성화의 원리에서, 형식 안에 제시된 법칙에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술을 외적인 법칙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법칙에 따라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을 가능케 하는 근원형식, 기술에 내재하는 법칙에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²²

21. 재현기능들이 단일하거나 명료하기보다는 여러 위상으로 분해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상징형식들이 구성된다고 카시러는 주장한다 (PsF III, 149).

22. “사람들이 기술적인 작업(제작)의 현존 대신에 기술적인 작용의 형식에 근거를 두고, 단순한 산물에서 방법, 생산하는 방식으로, 형식 안에 제시된 법칙에 시선을 되돌린다면, 그럼으로써 기술에서 그것에 달라붙어 있는 것

기술에서 형식부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에서 손을 뺀 행위를, 더 나아가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를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신화적-주술적 세계에서 범정령적인 성격을 띤 도구가 표현기능을 담당하는 데서 벗어나 어떻게 “순수하게 사태를 규정하고 배열하는 묘사수단” 혹은 재현수단이 되었는가 (FT, 162)라는 물음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선 몸과 영혼의 공존에 기반한 신화적 세계에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기술의 발전도 재현의 과정을, 즉 이념적으로 구상하고 역동적이면서도 순수한 정신적 형식을 얻는 행위과정을 끊임없이 수반한다는 것, 기술도 역시 이미 상징적 함축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과 작업 사이에 도구가 들어온다면, 인간과 작업 간의 통일은 위태로워지고 간접성의 형식을 띤다. 도구는 몸의 형식의 반영이고 반사이다. 카시러는 이것을 “기관투영(Organprojek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기관투영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인공물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몸의 성질에 대하여, 신체상의 구조에 대하여 통찰할 수 있었다” (FT, 168). 다시 말해서 특정한 목적-기술적 기관들을 조성하는 것을 배움으로써만 자신의 감각기관들을 구축하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원시적인 도구들이란 망치, 도끼, 끌, 드릴과 같은 것들이다. 이때 인간은 사용하는 도구들과 더욱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즉 도구를 사물성보다는 기능의 측면에서 고려하게 되고 유기적 통일성을 회복한다 (FT, 171). 이처럼 도구사용의 과정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대상화하고 통일성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서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은 좀 더 급진적인 형태이다. 카시러는 상징세계와의 관계에서 인간 의식에서 일어나는 어떤 ‘위기’, ‘단절’, ‘거리’와 ‘표상’을 강조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도구와 기술의 의미를 부각한다. 그에 따르면 묘사기능이 표현영역에 속하는 형성물로부터 연속하여 발달해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형성물들에 대해 항상 어떤 종적인 새로움을, 즉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을 보여준다 (PsFIII, 130). 카시러는 이러한 전환점에 주의를 기울인다. 기술에서 이러한 전환점을 찾는다면, “유기적인 한계의 해방”의 법칙을 따라 완전히 전개된 기술의 도구들의 등장이다 (FT, 169). 즉 자연이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원상으로부터 해방된 기술의 도구들이다. 재봉틀과 압연기, 비행기와 같은 근대기계의 구조는 의식적으로 자연에 대립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움으로써 발견되었다. 일례로 비행기는 새의 비행이라는 원

처럼 보인 그러한 속박이, 그러한 제한과 파편적인 것이 사라진다. 기술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성과 속에 있지도, 그러한 성과와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과제와 자신의 문제제기와 함께 진정으로 포괄적인 질문영역 속에 편입되는데, 그러한 질문영역 속에서 기술의 특별한 의미와 고유한 정신적인 경향이 규정되는 것이다” (FT, 145).

상에서 해방될 때, 즉 움직이는 날개의 원리를 포기할 때야 비로소 결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도구의 발견으로부터 재현되는 것은 작용방식, 작업 자체의 양상의 혁명이다. 즉 재봉틀로 인해 새로운 재봉방식이, 압연기로 인해 대장장이의 방식이 고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의식의 전개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종적인 새로움이 발생하는 전환점에서 획득하게 된 형식이다. 형식을 획득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의미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며,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다 (FT, 151).

이러한 형식이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주술적 세계는 놀랍게도 사물의 진행과정이 원인과 결과로 촘촘히 쌓여진 세계로, 오히려 인과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세계보다는 과학적 세계에 가깝다.²³ 그러나 소망이 중심이 되는 주술적 세계에 세계 형성의 진정한 싹이 놓여 있지만, 그 매개체는 싹을 틔우지 못한다. 여기에서 의지는 “직접적으로” 자기의 목표가 되는 소망으로 옮겨가는데, 주관과 객관, 자아와 세계가 주술적으로 동일화됨으로써, “상호간의 분리나 결정(Auseinandersetzung)”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FT, 156). 도구사용과 함께 대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분명 묘사기능이 작용하지만, 객관적인 내용이 자신의 신체의 경계선에 그침으로써 그 기능이 진정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PsFIII, 151). 그러나 도구를 사용하는 기술적 태도의 경우에, 의지의 힘은 그 목표를 멀리 세운다. 여기에서 객관적인 직관이, 대상들의 세계로서 세계의 직관이 가능해진다. 여기에서 대상은 의지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지에 규정과 확고함을 부여하는 기준이다. 이때 “도구는 [...] 대상을 직관하면서 파악된 매개개념” (FT, 158)이다. 즉 도구의 매개성이 의지로 하여금 대상과 거리두기를 가능케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떨어져 바라보는 것(Ab-sicht)”이 가능해지며, “고유한 시선방향”이 생겨나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목표를 규정할 수 있게 되며, 자아와 세계간의 상호간의 분리나 결정이 일어남으로써, 순수한 직관도, 사유도 가능해진다 (FT, 159).

신화적-주술적 세계에서 강력한 신성으로 여겨지던 도구가 이제 오히려 대상과 세계를 바라보는 매개체로 등장했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도구의 힘에 지배당하던 인간이 도구의 지배자로, 확장자로 인식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직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도구가 대상세계를 변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도구 자체도 변형을 겪는데, 이러한 변화에서 인간의 자기의식이 강화되고 그와 함께 새로운 세계관이 나타난다 (FT, 163). 여기에서 의지는 근원적으로 낯선 질서에 개입하고 이러한 질서를 알고 인식한다. 자연을 사로잡고 억압하는 주술적 태도와는 달리, 자연에 순종하여 자연의 필연적인 확고한 법칙을 따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형상은 결정적인 것

23. Ernst Cassirer, *An Essay on Man* (1944)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0), pp. 75-76.

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활동의 여지를 제공한다. 그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활동의 여지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세우고 자신의 본질을 직관한다(FT, 163). 그래서 새로운 세계란 인간이 자기의식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규정하는 행위의 순수한 형식이 산출되는 세계이다.

카시러도 기술이 진전되면 될수록, 그리하여 유기적인 한계의 해방의 법칙이 기술 안에서 작동하면 할수록 근원적 통일성은 느슨해지고 마침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노동과 작업의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체험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을 멈춘다. 왜냐하면 작업의 ‘목적’, 진정한 텔로스(Telos)는 이제 기계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간은 노동과정 전체에서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이며, 더욱더 단순한 파편으로 변하는, 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FT, 171-172). 이러한 관점은 20세기 전반기에 나타난 기계와 기술에 대한 성찰로,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인공지능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 다시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인간의 자율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소외의 원인을 기술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오히려 카시러는 기술이 그 원인이라기보다는 현상이고 징후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술을 가치의 측면에서 진단하지 말고, 기능적 측면에서 볼 것을 요구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인간 자신을, 인간 정신의 사태를 볼 것을 요구한다.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결국 정신의 척도인 것이지, 단순히 유기적인 삶의 척도가 아니다. 기술에 적용하는 법칙은 단순히 생명력이 있는 영역에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형식세계의 전체에서 이끌어내야만 한다”(FT, 172).

기술이 현상이고 징후라면 기술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의 문제는 이제 존재개념에서가 아니라 형식개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시 기술이 우위에 서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사유나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정신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기술이라는 낯선 힘을 본질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때만이 비로소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정신적 형식을 볼 수 있다. 기술은 인간 정신이 객관화된 형식이다. “기술이 정신적인 삶 전체와 맺는 관계, 기술이 정신의 삶의 총체성과 보편성과 맺는 관계”에 주목할 때, 비로소 기술 속에서 정신의 바라봄의 형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기술이 인간에게 부여한 풍부함이 인간성의 자기-해방수단이 되고 자유이념 자체가 될 수 있다(FT, 173).

상징적인 함축이라는 관점에서 기술을 본다면, 이 점은 더욱더 확실해진다. 기술이 인간의 도덕적 자기규정과 무한한 창조성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신은 항상 새롭게 자신의 관점에서 대상들을 비교하고, 대상의 관점에서 자신을 비교하는 활

동 속에서 현실성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내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내적 성장은 현실적인 것과 가능한 것 간의 끊임없는 운동 속에서 가능하다. 즉 “우리가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가능한 것의 영역으로 되돌아가고, 현실적인 것 자체를 가능한 것의 상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 (FT, 176)에서 가능해진다. 현실적인 것을 가능한 것의 상으로 보고 그것들의 운동에 중점을 두게 되면, 기술을 재현기능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의 의미는 분명해진다. 이제 기술이 무엇인가를 묻지 말고,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그 최종적인 증명을 특정한 산물을 판단하는데 두기보다는, 그것을 명시하고 산출하는 것에서 행해야 한다. 이제 중요해지는 것은 형식과 의지의 관계이다. 그것은 기술로 인한 자기의식의 강화를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다 (FT, 163). 따라서 여기에서 인식되는 것은 인간을 엄습해 왔던 현실 자체가 실은 경직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경될 수 있는 유연한 대상이며, 인간이 무한한 창작의 길 위에서 있다는 점이다.

V. 재현의 관점에서 본 기술과 예술의 차이

기술을 기능의 측면에서, 형식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과 언어, 기술과 이론적인 인식, 예술과 기술의 관계와 같이, 기술과 다른 상징형식들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예술은 형식, 직관, 재현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앞에서 이미 기술도 역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논하였기에 기술을 예술과 비교하거나, 기술의 창조 역시 예술의 창조와 함께 논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술의 창작이 예술의 창작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문화적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실러가 유희충동을 통해 예술을 “인간성의 창조자” (FT, 166)로 보았던 것처럼,²⁴ 기술에도 이 같은 명칭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애석하게도 실러의 관점에 따르면 기술은 소재 충동 혹은 감각적 충동에 지배를 받기에, 기술은 계속해서 외연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적 작용은 인격적인 실존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짐으로써 깊이를 상실하고, 인간성을 창조하기보다는 인간성의 상실로 진행될 우려를 낳는다. 그러나 카시러가 보기에, 이러한 우려는 일방적인 관점만을 보여줄 뿐이다. 그가 주목한 것은 기술의 외부나 내부의 대립이나 한계보다는 그것들의 상호관계이다. 즉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외부’와 ‘내부’ 사이의 분할이나 절대적인 한계가 없다. 이러한 에너지를 통해 밝혀진 세계의 모든 새로운 형상은 동시에 항상 내적인

24. Friedrich Schiller, *On the Aesthetic Education of Man* (1795), eds. & trans. Elizabeth M. Wilkinson & L. A. Willoughb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15th Letter.

존재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다. 즉 그러한 새로운 형상은 이러한 존재를 은폐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측면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FT, 166-167). 기술은 정신을 객관화하는 형식으로, 이 때문에 자아와 기술적인 행위 형식의 결합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생성원리’에 중점을 두는 형식개념에서 기술을 논하는 것은 기술의 형식을 창조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한다. 가능한 것이 현실적인 것에 이식되는 기술적 창작을 생각해 본다면, 기술자는 기술에 존재하는 가능성들 중 필연적인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산출하는 자이다. 기술자에게 형식이란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대상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는 형식을 점차 발견해온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형식은 정신의 전체적 운동의 원리에 달려 있다.

그 예로서 최초의 작품제작자는 플라톤이 말한 바 있는 데미우르고스이다. 데미우르고스가 세상을 만들 때 이데아를 보고 만들었던 것처럼, 목공이 베틀의 북을 제작할 때, 주목하는 것은 형식(eidos)이다.²⁵ 플라톤이 이데아와 현상의 관계를 전개하고 체계화하려고 할 때, 그는 자연의 형식들에 의지한 것이 아니고 테크네(techne)의 형성물에 의지한다. 여기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예술이, 숙련된 기술과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테크네로 이해되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카시러는 “이 예술(Kunst)이 존재하는 것이자 현존하는 것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고, 모범이자 원상의 근거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즉 예술의 창조에서 예술가의 창조를 고려하게 한다”(FT, 144)고 주장한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으로 방직바디(베틀 북)를 발명한 예술가는 그것을 감각적인 세계에 미리 주어진 것으로서 찾아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도구의 형식과 규정을, 에이도스와 목적을 주목함으로써, 그것을 감각적인 세계에 처음으로 등장시켰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방직바디의 제작자는 작업 중에 방직바디가 떠올라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되었을 때, 떠오른 도구를 모델이나 모범이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일에서 방향을 부여했던 것은, 마치 근원적인 형식이 최초로 발견의 정신 속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그러한 ‘근원적인’ 형식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었다”(FT, 144). 오늘날의 제작자들도 근원형식, 즉 보편적인 형식을 바라봄으로써 도구를, 기계라는 진정한 존재를 형성한다. 창작자는 이러한 바라보는 행위와 근원적인 형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시의 기술철학들의 물음, 즉 “어느 정도나 기술적인 작품이 순수하게 미학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순수하게 미학적인 규범을 부과하는지”와 같은 물음에 카시러가 답하고자 할 때, 그가 제시한 것은 포괄적인 형식미이다. “소제’에 대한 ‘형식’의 승리, ‘물질’에 대한 ‘이념’의 승리가 나타나는 도처에서 ‘미’의 규범을 이야기할 만큼 그것을 넓게 이해한다면, 보다

25. 플라톤, 『크라틸로스』, 김인곤, 이기백 옮김 (이제이북스 2007), 389a.

높은 수준에서 곧바로 기술이 자신의 몫을 갖는다는 것에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다음 이러한 형식미는 '전적으로' 정신적인 실행과 정신적인 형성 일반을 넓게 포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한다면, 플라톤이 『향연』에서 언급한 대로, 구체적인 형성의 미만이 아니라 논리적인 미와 윤리적인 미, '인식의 미'와 '윤리와 노력(지향)의 미'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형식개념으로부터 예술적인 창작의 특수한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제한과 특수한 규정이 요구된다”(FT, 178). 포괄적인 형식미에 대한 카시러의 요구는 오히려 기술에서의 정신적인 힘, 의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칸트 이후에 적용된 미의 특수성을 적용한다면, 기술과 예술은 확연히 차이를 드러낸다.

카시러는 기술이 예술창작의 특수한 영역에까지 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점들로 제시하였다. 우선 예술을 개별적 특수성과 총체성의 관계로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기술을 설명하지 못한다. 즉 천재적인 한 예술가가 구성된 개별적 특수한 형상이 시대의 전체상을 담아내는 것과 같은 방식을 기술적 작품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FT, 178). 둘째, 시적 형상이나 조형적인 형상은 창작자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품고 있던 것이 처음으로 현실 속에 발현된 것이고, 영혼의 운동과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단순히 현실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반면,²⁶ 기술적인 작품의 경우에는 현실 속에 내놓아진 이상, 현실 자체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기술적인 작품은 창작자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와 분리되어 기술적인 작품 자신에 관해 말한다는 점이다. 셋째, 문화발전의 양극단을 표현의 세계와 의미의 세계로 나타낸다면, 양극단 사이에서 예술은 이상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반면에,²⁷ 기술은 이론적인 인식과 밀접하게 결합함으로써, 의미의 세계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순수한 의미성이라는 객관적인 영역에서 자신을 부각하기 위해 오히려 모든 표현적인 것을 포기하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이다.²⁸ 모든 감각적인 내용이 “현전과 재현의 어떤 구체적인 통일체”라는 점에서 현상과 재현기능 사이의 긴장관계, 거기에서 발생하는 형식과 의미 사이의 긴장관계를 주목할 때, 도구에서 논의된 재현기능에 따라 설명할 수 있었던 기술은 그 형식의 발전과 함께 오히려 의미기능에 더욱 가까워진다. 이점이 표현기능과 의미기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예술

26. 괴테는 시의 소재나 구상의 모티프를 40년 내지 50년간 지니고 있었다고 말한다. 괴테, 「재치 있는 말 한마디를 통한 의미 있는 지원」 『색채론: 자연과학론』, pp. 352-353 참조.

27. Orth, “Goethe als Therapeutikum zu Ernst Cassirers Pathologie des Symbolischen”, p. 148 참조.

28. 카시러가 볼 때, 기술은 이론적 자연인식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서로 균형을 이루었다. 기술적 창작에 있어서 기술이 자신의 법칙을 따를 때, 그리고 기술이 자연의 작용을 범할 수 없는 전제들로 고찰할 때, 기술은 자연에 순종한다. 그럼에도 그 경우 기술에게 있어서 자연은 완성된 것도, 단순한 법칙도 아니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새롭게 정립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조망의 법칙이 관여하고 있다(FT, 175-177).

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할 때, 기술을 향한 윤리적인 법칙의 적용과 그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된다. 기술이나 예술이 그 형식과 재현 속에서도 결국 하나의 공통된 의미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은 자유와 의지의 문제이다.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했는가, 기술이 자연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지만 오히려 사회적 속박을 강화한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는 소외, 작업의 기계화, 가혹한 노동을, 다른 한편으로는 욕구를 부추김으로써 의미 없는 상품에 대한 무자비한 갈망을 일으킨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카시러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들은 기술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술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수단만으로 충분치 않고,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순한 오성이나 기술적이고 학적인 이성의 능력에 호소하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다. 오히려 모든 윤리적 공동체가 토대로 삼고 있는 새로운 의지를 요청해야만 한다. 카시러는 기술이 자기 목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에 칸트의 목적의 왕국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FT, 182). 다시 말해서 그는 기술적인 창작 안에서 정신적인 윤리적인 의식의 고양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현실적인 것과 가능성적인 것의 관계 속에서 기술을 파악한 것이나, 포괄적인 형식미의 관점에서 기술을 파악할 때도 공통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은 기술적인 창작 안에서 윤리적 의식의 고양이다. 기능과 형식의 관점에서 논할지라도, 또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을 논할지라도, 결국 기술을 창작하는 자가 바로 인간이기에, 인간성의 관점에서 기술을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카시러는 기술을 순전히 기능, 형식의 관점에서 볼 것을 요청하면서도, 기술의 형식에서 문화의 의지가 향하는 방향을 윤리적인 것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 기술과 예술에서 직관방식과 재현기능을 다루면서 초점을 맞췄던 것은 형식을 통해 표현된 인간의 자기의식의 전개와 형성이다. 문화의 현상학적 운동, 자아와 세계에 대한 현상학적인 운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의 발달 혹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인간 정신의 바라봄의 형식이 변화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며, 기술의 새로운 형식이 출현함으로써 이것이 다시 인간의 지각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방식의 변화가 인간 자신의 의식의 변화 역시 초래한다는 점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의 향상은 인간 정신을 불안하게 하고 많은 우려를 낳지만 그러한 기술은

원인이 아니라 징후이고 인간 정신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인간 정신에서 그 요인을 찾아야 하며,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 인간 의식에 일으키는 직관방식과 결과들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로부터 새로운 형식을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와 그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기술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형성자인 인간에게 책임도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카시러는 오늘날처럼 예술과 기술이 결합되고, 심지어 그 두 영역이 분리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는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가 여전히 강조한 것은 상징형식 각각의 영역의 고유성이다. 기술과 예술에 대하여 기능적·형식적인 측면을 세세하게 논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것들이 삶의 형식에 따라 그 고유의 형식들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설령 두 영역을 분리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식이 생성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중심점을 형성하는 것은 인간성이다. 결국 그것이 정신의 운동이 도달하게 되는 최종목적이다. 따라서 기술이건 예술이건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문화형식을 창안하고 발전시키는 주체로서 인간 자신, 인간의 정신인 것이다.

논문투고일: 2022년 12월 15일

심사기간: 2022년 12월 16일-2023년 1월 11일

최종게재확정일: 2023년 1월 12일

참고문헌

- 괴테, 『색채론: 자연과학론』, 장희창·권오상 옮김, 민음사 2003.
- _____, 『이탈리아 여행』, 박영구 옮김, 생각의 나무 2005.
- 스피노자, 『정치론』, 공진성 옮김, 도서출판 길 2020.
- 신익성 편저, 『흄볼트, 언어와 인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성염 옮김, 경세원 2020.
- 플라톤, 『크라틸로스』, 김인근·이기백 옮김, 이제이북스 2007.
- _____, 『테아이테토스』, 정준영 옮김, 이제이북스 2013.
- Bermes, Christian, “Cassirers Konzeption einer Anthropologie der Technik”, in *Philosophie der Kultur-Kultur des Philosophierens*, hrsg. von Birgit Recki,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12, pp. 583-600.
- Cassirer, Ernst, *An Essay on Man* (1944),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0.
- _____, “Der Begriff der symbolischen Form in Aufbau der Geisteswissenschaften” (1923), in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Aufsätze und kleine Schriften (1922-1926), Bd. 16, Hamburg: Meiner Verlag 2003, pp. 75-104.
- _____, “Eidos und Eidolon. Das Problem des Schönen und der Kunst in Platons Dialogen” (1924), in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Aufsätze und kleine Schriften (1922-1926), Bd. 16, Hamburg: Meiner Verlag 2003, pp. 135-163.
- _____, “Goethes Pandora” (1924), in *Idee und Gestalt. Goethe, Schiller, Hölderlin, Kleis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4, pp. 7-31.
- _____, “Form und Technik” (1930), in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Aufsätze und kleine Schriften (1927-1932), Bd. 17, Hamburg: Meiner Felix Verlag GmbH 2004, pp. 139-183.
- _____,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dritter Teil: Die Phänomenologie der Erkenntnis* (1929),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 _____, *Zur Logik der Kulturwissenschaften. Fünf Studien* (1942),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Band 24, hrsg. von Birgit Recki,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7.
- Falkenburg, Brigitte, “Wissenschaft und Technik als symbolische Formen”, in *Philosophie der Kultur-Kultur des Philosophierens*, hrsg. von Birgit Recki,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12, pp. 567-582.
- Gerhardt, Volker, “Menschwerdung durch Technik. Ernst Cassirers Theorie des Geistes”,

- in *Philosophie der Kultur-Kultur des Philosophierens: Ernst Cassirer im 20. und 21. Jahrhundert*, hrsg. von Birgit Recki,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12, pp. 601-622.
- Goethe, Johann Wolfgang von, "Pandora" (1810), in *Goethes Werke*, Hamburger Ausgabe in 14 Bänden, Band 5, hrsg. von Erich Trunz, München: Beck 1982.
- Kant, Immanuel, *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1787), hrsg. von Raymund Schmidt,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67.
- Krois, John Michael, *Cassirer: Symbolic Form and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7.
- Orth, Ernst Wolfgang, "Zum Begriff der Technik bei Ernst Cassirer und Martin Heidegger" (1987), in *Von der Erkenntnistheorie zur Kulturphilosophie. Studien zu Ernst Cassirer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Würzburg: Königshausen & Neumann 1996, pp. 278-300.
- _____, "Goethe als Therapeutikum zu Ernst Cassirers Pathologie des Symbolischen", in *Cassirer und Goethe: Neue Aspekte einer philosophischen literarischen Wahlverwandtschaft*, hrsg. von Barbara Naumann & Birgit Recki, Berlin: De Gruyter Akademie Forschung 2002, pp. 137-156.
- Schiller, Friedrich, *On the Aesthetic Education of Man* (1795), eds. & trans. Elizabeth M. Wilkinson & L. A. Willoughb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Simmel, Georg, "Der Begriff und die Tragödie der Kultur" (1911), in *Hauptprobleme der Philosophie, Philosophie Kultur*, Gesamtausgabe Band 14, hrsg. von Rüdiger Kramme und Otthein Rammstedt,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96, pp. 385-416.